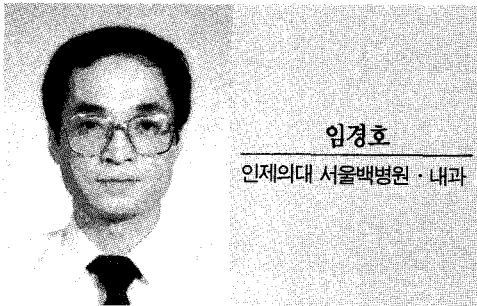


행복한 결혼을 위해

청혼전에 당뇨를 먼저 말하라!



임경호
인제의대 서울백병원 · 내과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엔 결혼해서 자손, 특히 아들을 갖는다는 것이 아직도 보편적인 희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라도 아들을 갖지 않는 것은 커다란 불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더우기 자손중에 불구라든가 덜익은 과일같은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생각도 갖고 있다.

이러한 장황한 얘기는 제목에서 언급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이다. ‘당뇨병 환자와 결혼하여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 못지 않게 ‘내가 당뇨병 환자라면 상대방에게 고백을 하여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민들이 생기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당뇨병을 보고 있는 시각이 뼈뿔 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잘못알고 있는 당뇨병에 대한 지식때문이기도 하다. 부모중에 한사람이 당뇨병이면 자손은 무조건 당뇨병에 걸린다든가 아니면 불구자를 낳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환자중엔 당뇨병을 숨기고서 결혼을 했다가 혼이 난 사람도 있고 결혼전에 얘기를 하고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두가지 실제적인 사실을 들어 얘기하고자 한다.

먼저 첫번째 경우의 여자부터 얘기하자. 10대부터 당뇨병을 가지고 있던 이분이 필자를 처음 만난 것은 당뇨성 케톤산증으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면서 부터이다. 그전까지는 당뇨병이란 것을 모르고 지냈고 처음에 이런 식으로 당뇨병을 알게 된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었다. 왜 나만 당뇨병에 걸렸느냐는 식이었다. 그러나 당뇨병에 대한 교육도 열심히 받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도 많이 하고 다니는 환자였다.

그런데 어느날 인슐린을 맞고서 자꾸만 두드러기가 난다고 외래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었다. 입원중이나 퇴원후 얼마동안은 괜찮았는데 최근에 와서 그렇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인슐린이 잘못되었나 생각하고 바꾸어 주었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세히 캐어 물어보니 환자는 일회용 주사기를 소독한다고 끓여서 사용하였던 것을 알아내었다. 그 당시엔 일회용 주사기가 보편화되지 않았고 유리주사기를 사용하고 그것을 소독하기 위해선 끓여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이 환자는 앞의 말을 듣지

않고 무조건 끓여서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선 그리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를 주고 돌려보냈는데 그후에 물론 탈이 없었음은 물론이다.

비교적 혈당조절도 양호하게 하였고 별탈 없이 몇년이 흘렀다. 그러다가 환자는 어느날 필자에게 결혼을 해야겠는데 만약 시댁에서 누가 찾아와 자기 병에 대해 물어 보면 모른다고 얘기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선 극구 반대를 하였다. 지금 미리 얘기해라 아니면 나중에 어쩔려고 그러느냐, 결혼하기전에 당뇨병을 모르고 있다가 후에 발견했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지금은 이미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긴 세월을 감추고 살겠느냐, 당뇨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겠다면 그런 남자하곤 결혼하지

말아라, 그 따위 남자를 뭘 믿고 같이 살겠는가 하고 있는 소리 없는 소리해서 그 환자를 설득하려 하였으나 듣지 않고 결국 그 환자는 당뇨병을 숨기고 결혼에 성공했다.

1년 쯤 세월이 지난 어느날 다른 환자가 들어와 필자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나이도 그 또래 비슷한 여자 환자였는데 이 환자가 통곡을 한 이유는 당뇨병을 숨기고 결혼한 그 여자가 불쌍해서 운다는 것이었다. 자기도 당뇨병이기 때문에 서로 안면은 있는 사이였는데 지금 보니까 당뇨병을 숨기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발각이 되서 시집 식구들로부터 학대를 말할 수 없이 받는다는 것이었다.

원래 멀쩡한 여자가 들어가도 시집 식구들로부터 처음엔 고초를 받는다는데 이젠 하인 취급도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애기까지 유산이 되니까 이혼하자고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 인생이 불쌍해서 자기가 대신 운다면서 또 방성대곡을 하는데 어찌나 슬프게 우는지 주위 사람들 모두가 울었다.

그후에 한참동안 그 환자는 병원에 오지 않다가 최근 몇년전에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과는 이혼하고 다시 결혼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얘기를 가져도 되느냐는 중대한 기로에서 상담을 요청해 온 것이다. 그래서 이번엔 당뇨병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느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면서 남편이 잘 이해해 주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다행이다, 그렇다면 혈당조절을 열심히 해 보자면서 격려해 주었고 결국은 딸을 하나 낳았다. 지금도 그 딸을




보면 자기의 지나간 과거가 생각이 난다고 한다.

두번째의 여자는 나이가 38세쯤에 처음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고 당뇨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나선 더더구나 결혼

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마흔이 넘어서 결혼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뇨병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느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면서 남편될 사람도 이해해주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와서 아기를 갖겠다는 욕심은 없고 그저 서로 의지하며 살자는 것이라고 말을 해서 그런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아기를 갖고 싶은데 어찌면 좋겠느냐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아기를 가질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살다보니 남편도 아기를 원하고 자기도 원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당뇨병은 잘 조절되니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나 단지 나이가 많아 걱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한번 시도해 보자고 했다. 그래서 결국 임신을 하게 되었고 산부인과 의사와 내과, 또 남편의 협조 등으로 무사히 임신을 끝내고 아주 예쁜 딸을 낳게 되었다. 필자의 권유로 이 환자는 자기의 투병 생활을 당뇨교실에서 발표했는데 투병담이 끝난 후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음은 물론이다.

당뇨병이란 것은 결코 나쁘거나 저주받은 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야 하며 혈당을 조절하며 지낼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당뇨병 환자들은 실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당뇨병에 관계되는 의료인이나 관계자들은 교육이나 대중매체를 통하여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그래서 당뇨병이 걸렸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구출해 주어야 한다.



당뇨정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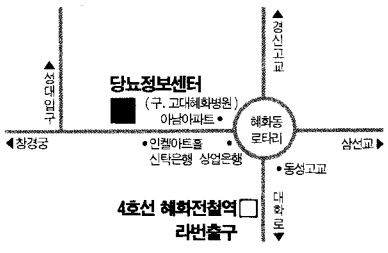
교육프로그램안내

- **교육프로그램**

 - 영양분과 : 매일 오후 2시~2시 50분
 - 간호분과 : 매일 오후 3시~3시 50분
 - 약제분과 : 매일 오후 4시~4시 50분

- **전화상담** : 매일 오전 9시~12시
 전화 : 02-745-2421~3
 02-747-6253

- **장소안내** 서울 중로구 명륜동2가 8-28호
 (성대입구에서 돈암동방면으로 100m)



4호선 **혜화전철역** □
리번출구

- **특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분께는
 당뇨관련 책자를 증정합니다.